

당정청 “배달앱 시장 상생 필요”

익산시의회 의장단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21대 국회 첫 을지로민생현안 회의를 열고 배달앱 시장의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과 문화·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21대 국회 첫 을지로 회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상생협력법도 개정키로”

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과 공정 경제 활성화, 직장 내 갑질 근절 등 여러 중요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힘있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도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하고 법 제정시까지 규범 확립 등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상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광고료, 정보독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력제도 9월부터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더불어 “체육계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8월부터 2019년도 기준 직장운동부 927개팀을 대상으로 현안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경우 특별감독 즉시 실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자 적용 여부에 대해 올 하반기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는 박홍근 위원장을 포함해 남인순·우원식·이학영·서영교·박정·송옥주·고민정·임오경·이용우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강성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청와대에서는 황수석을 포함해 인태연 자영업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상생협력법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체육계 갑질 근절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직장팀 900여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지역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골목경제를 살리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체육계와 문화, 예술계의 갑질을 근절하고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뺏기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코로나19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이들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생겼다. 플랫폼 입점업체, 방송예술 종사자, 특수고용 근로종사자 큰 난관 겪는 분야 직접 공격하게 됐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 없는 민생 경제 극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불공정관행 전반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

정세균 총리에 ‘익산 현안 해결’ 건의

민주 김수홍 의원, “장점마을 주민 치유 위해 환경복원사업에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장점마을 사태의 치유 등 익산의 산적한 환경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나후면 익산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고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이 매우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정현을 익산 시장과 함께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정 시장은 익산시에 산적한 여러 환경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점마을 주민 치유

를 위해 정부가 환경복원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장점마을을 환경 치유와 회복의 대표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의 이적 처리를 위한 국비 부담 비율 향상 및 권역별 폐기물공공처리장 설치 사업에 익산시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새만금 오염원이자 축산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된 왕궁면 현업축사 매입을 위한 국비 276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해까지 80% 매입 완료될 예정인 왕궁면 현업축사를 2021년까지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 총리에게 국가의 도움 없는 익산의 환경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 시장도 익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장점마을 발암물질 원료인 연초박(담배찌꺼기)을 제공한 KT&G의 책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수홍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익산의 환경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준다면 앞으로 익산을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나후면 익산의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장점마을 사태 및 익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시행

국무회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공포안 의결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에서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공포를 완료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통과됐고 이틀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대상 심의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취득세 20% 부과

민주 정일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은 31일 최근 집값 폭등 속에서 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에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증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뉴시스

도의회 농산경위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

전북도의회 농산업 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달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경제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된 위원은 전북 달산업 클러스터 추진위원회 김진필 대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덕배 박사, 더불어민주당 이사장,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백정록 센터장, KIST 구조용복합소재 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현민



연구센터 양철민 박사 등 6명이며, 전라북도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 이뤄졌다.

의정발전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2022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농업·경제분야 주요 쟁점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심사시 자료, 농산업 경제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의정발전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철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